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효과적인 한국어 말하기 학습지도

김영경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Эффективная методика обучения говорению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Автор: Ким Ёнгён, КазУМОиМЯ,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Резюме: Для успешного обучения говорению, преподаватель должен, через центрированный на обучающемся подход, обучить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спользуемому в реаль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ь должен использовать во время занятий различные методы и приемы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речевых умений, знаний отличий устной и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развития навыков говорения.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навыков говор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строить процесс обучения с элементами интеграции таких как «чтение и говорение», «аудирование и говорение», «письмо и говорение».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 навыки говорения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бучение говорению,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речев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понимание особенностей устной речи, компетенция в дискурсе, модель урока, коррекция ошибок, модель обучения

주제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 말하기, 말하기 수업지도, 의사소통의 향상, 구어의 특성이해, 학습자중심, 담화능력, 통합교육, 언어의 실제성, 언어의 유용성, 사회언어, 말하기 수업활동, 말하기 수업모델, 피드백, 오류수정

들어가는 말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말하기 수준은 학습자의 외국어 수준을 알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외국인 학습자가 정확한 문법과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서 어색하지 않은 어조와 억양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함으로써 쌍방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그 학습자는 “외국어를 잘 한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말하기 수준은 학습자의 언어수준을 변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학습자 스스로에게도 한국어 학습 동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실례로 학습자들이 문법이나 읽기, 쓰기 영역에 비해 말하기 실력이 향상되어지지 않을 때 언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고 학습동기도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한국어를 자주 듣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실 내 교수 - 학생 활동에 제한된 말하기연습이 이루어질 때 말하기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교육적 효과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고는 학습자가 한국어 아닌 모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울 때 교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인 말하기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1. 말하기 수업의 목표, 어디에 둘 것인가?

먼저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말하기 교육목표는 학습자가 자신의 처해진 환경과 상황속에서 한국어의 화법과 문화에 맞게 자신의 의사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일상생활상의 대화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표, 토론등 사회활동을 위한 언어활동의 중요한 기능도 습득되고 향상되어가도록 이끌어 가야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말하기 교육 목표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정확한 발음, 유창성 확보, 의사소통 능력개발, 담화능력 향상, 과제중심의 수업활동구상, 학습자 주도적 학습전략을 이야기 하였다.

이와 같은 언어교육의 중심목표를 토대로 수업현장에서의 실현 가능한 한국어 말하기 초·중·고급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단계	말하기 교육의 목표
초급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연습한다. 일상생활의 친숙한 주제에 대해 질문과 대답이 가능하고 짧은 이야기도 구성하여 이야기 할 수 있다. 초급 수준의 조사와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정확한 문법과 발음을 구사할 수 있으나 반복적인 연습이 요구된다.
중급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초급보다 정확하고 유창하게 말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추상적 주제라도 간단한 질의 응답이 가능하고 주제에 맞는 논리적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말하기를 통합하여 듣고 읽은 내용에 대해 간단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대화 상대자의 따라 구분되는 격식과 비격식을 때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중급수준의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을 말할 수 있으나 발음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고 부자연스러운 억양 교정도 필요하다
고급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주제나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어법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주장할 수 있다 공식과 비공식, 격식과 비격식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형태를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다.

억양과 발음에 있어서 의사소통상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2. 말하기 수업의 방향,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말하기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있다고 할 때 말하기 수업내용의 방향도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학자 Canale 과 Swan 은 언어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은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학습자의 연령, 학습능력수준, 학습 목적, 학습자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말하기 수업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1) 구어(표현의 언어)의 특성을 반영한 말하기 수업

한국어도 다른 외국어과 같이 구어와 문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구어는 문어에 비해 비교적 조사나 문장성분생략이 자유롭고 덜 격식적인 어휘나 문법 표현들이 사용된다. 적절한 호칭어나 주체 존대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되게, 진짜, 무지” 등의 문장부사도 많이 사용되고 ‘고’가 ‘구’로 ‘네가’ 대신 ‘니가’로 사용되는 적도 많다. 실례로 초급이상 학습자들은 교실 밖, 특별히 드라마등 매체를 통해 듣는 구어적 표현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한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한국어 말하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어의 특성을 이해한 말하기 학습지도가 필요하다.

2) 발음과 문법적 능력을 향상 시키는 말하기 수업

말하기 교육을 할 때는 정확한 발음을 이용해 적절한 속도로 이야기하고, 자연스러운 발화를 구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음소의 정확한 발음뿐만 아니라 음절이나 음절의 연쇄, 음운 규칙에 의한 변화, 자연스러운 억양의 구사, 발화 속도, 적절한 끊어 말하기나 쉬어 가기 등에 대한 교육과 연습이 필요하다 적절한 어휘와 표현을 선택하여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구성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능력이 갖추도록 말하기 수업이 계획되어야 한다. 문법규칙을 이해하고 반복적인 연습과 활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익힌 문법규칙이 언어의 실제 사용에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3) 이야기능력을 키우는 말하기 수업

궁극적으로 말하기 수업은 학습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이야기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이 구성되어야 한다. 주제에 맞게 일관된 내용으로 담화를 지속할 수 있고 자신의 논지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예시, 이유, 가정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토론, 면접, 연설등에서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형식도 지도해야한다. 대화원리를 이해하여 적절하게 화

체를 유지하거나 화제 바꾸기, 대화에 끼어들거나 적절하게 순서 교대하기 등도 중·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에게는 점차적으로 지도해야 할 영역이다.

4) 사회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말하기 수업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수업이나 교재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가치관, 행동양식, 전통과 문화를 함께 배우며 이해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언어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문화는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 숙달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호간의 소통을 위한 것이 된다. 그러기에 학습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환경(문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특별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관습과 문화는 언어에 절에도 깊은 관련이 있어서 주체 높임법, 격식표현과 비격식 표현, 친근한 표현과 공손한 표현,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인 표현등을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5) 실제생활 중심의 관계중심적인 말하기 수업

말하기 수업의 목적은 실제 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에 있으므로 말하기 수업은 실제적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과제 중심이란 학습자에게 실제 생활과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여 말하기 활동을 조성하여 연습하므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적응력과 사용 가능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기 수업은 개인 말하기 뿐 만 아니라 짝 활동, 소그룹활동 등을 통해 상호 활동 상황을 만들어 보다 다양하고 반복적인 상호활동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런 관계중심적인 수업운영은 학습자 혼자 수행할 때의 불안감을 약화시키면서도 그룹 안에서의 역할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고 그룹 구성원들은 상호활동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지지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며 개 개인의 약점과 강점을 찾고 보완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다.

6) 적절한 오류를 수정해 주는 말하기 수업

오류수정의 목적은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왜냐하면 오류를 그대로 방치하면 오류가 습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류의 지나친 수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의사소통의 욕구를 좌절시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활동이 정지되거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장의 기본 구조가 잘못되어 의사소통에 큰 방해가 되거나 의미이해를 어렵게 하는 전체적 오류,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머(Harmer, 2001)의 오류 수정 지도 방법을 참고하여 수업 상황에서 의 오류수정지도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① “다시 한번 말 해 보세요?, 네? 뭐라고요?” 등과 같이 반복하여 반응함으로써 오류가 있음을 암시해 주거나 학습자의 오류를 교사가 다시 한번 따라함으로써 오류가 있음을 알려준다.
- ②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잘못 되었을까요?”처럼 학습자에게 오류가 있음을 질문을 통해 스스로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 ③ 교사가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오류가 있음을 인식시킨다.
- ④ “조사에 주의해서 다시 한 번 말해 보세요” 라고 함으로써 오류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고치게 할 수도 있다.
- 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말하므로 다른 학습자들의 도움도 유도할 수 있다.
- ⑥ 학습자의 오류가 있는 문장을 칠판에 써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하면서 오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⑦ 잘못된 문법적 오류에 대해 다시 설명해 줌으로 학습자 스스로 수정하도록 한다.

오류수정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올바른 문장을 직접 교사가 수정해 줄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지적을 통한 수정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오류를 바로 잡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3. 말하기 수업 과정,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1) 말하기 수업 원리
- (1) 실제성과 유용성: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반영한 학습환경, 과제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인 언어사용 능력이 향상되어지도록 해야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신조어, 속담, 사자성어등 사회의 문화가 반영된 관용표현들도 연습함으로써 한국어가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지도해야한다.
- (2) 정확성과 유창성: 학습자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와 문법활용, 발음, 어조등에 대해 적절한 교정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초급학습자에게는 정확성을, 고급에 가까울 수록 유창성을 고려한 수업 구성이 필요하다
- (3) 자율성: 교사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습자가 수업의 주체가 되도록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사의 설명이 아니라 학습자의 말하기 수행이 중심이 되며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4) 피드백: 학습자의 말하기 동기의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교사의 긍정적인 반응, 수용적인 태도이다. 학습자의 언어수행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피드백과 칭찬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기 수

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2) 수업 구성 단계

한국어 말하기 수업을 다음과 같이 5 단계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도입 → 제시/설명 → 연습 → 활용 → 마무리

- (1) 도입단계: 학습목표와 관련된 적절한 질문, 교재의 삽화, 사진 자료 등의 보조도구를 활용해서 학습동기를 끌어내고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목표를 자연스럽게 이해시키는 단계이다.
- (2) 제시/설명 단계: 학습목표가 실제로 제시되는 단계로 목표 문법은 상황속에서 단순한 모델 대화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이후 문법규칙을 제시하고 사용을 익힘으로 도입 단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지시키는 단계이다.
- (3) 연습단계: 그날 배운 문법 유형을 단순한 것에서 복합적으로 연습의 형태를 발전시켜가며 반복연습, 교체연습등 통제된 연습이 주를 이룬다. 연습유형의 주제, 단어, 표현등은 과제수행 즉 실제생활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또한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말하기”를 통해 말하기를 통합적으로 연습하도록 구성한다.
- (4) 활용 단계: 이전 단계에 연습을 종합하여 실제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단계로 짧은 이야기나 혹은 게임, 대화문을 구성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 (5) 마무리 단계: 교육 내용을 정리하고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를 격려하고 또는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한 후 교실 밖에서의 과제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3) 실제 수업 모형 예시

- (1) 학습대상: 한국어 중급 학습자
- (2) 학습주제: “생활 속에 인터넷” (교재:카자흐스탄인을 위한 한국어3)
- (3) 말하기 학습목표
 - ① 인터넷과 관계된 어휘를 익히고 그 어휘를 이용한 문장을 정확한 발음으로 말 할 수 있다.
 - ② 인터넷 사용방법에 대해 배운 문법과 어휘를 적용해서 친구와 이야기 할 수 있다.
 - ③ 인터넷과 관련된 지문을 듣거나 읽은 후 질문에 적합한 답을 말할 수 있다.
 - ④ 인터넷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 효율적인 사용방법에 대해 발표할 수 있다.
 - ⑤ 한국의 인터넷 문화를 이해하고 카자흐스탄 인터넷 문화가 비교해서 말 할 수 있다.
- (4) 교육내용

- ① 인터넷 관련 어휘를 익힌 후 배운 어휘를 활용한 문장을 구성한다.
- ② 인터넷의 기능과 사용방법을 짝 활동을 통해 질의응답식으로 연습한다.
- ③ 인터넷과 관련된 지문을 가지고 “듣고 말하기”, “읽고 말하기”로 구성하여 말하기와 연관시켜 연습한다.
- ④ 그룹활동을 통해 인터넷 사용의 장·단점과 인터넷 사용규칙을 정하고 그룹별로 발표한다.
- ⑤ 한국의 인터넷 문화의 실제 기사를 읽고 느낀점을 이야기한 후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문화가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등을 분석해서 발표한다.

(5) 수업설계

	교사활동	학생활동	준비/보충
도입	컴퓨터상에서 볼 수 있는 화면캡처 보여주기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 이메일, 검색장, 블로그, 동영상, 이미지, ppt)	교사가 보여주는 그림 화면을 보면서 어휘를 추측하고 말한다	PPT를 통한 자료제공하면서 오늘 배울 인터넷이란 주제에 대한 동기부여를 준다
제시/설명	어휘제시/설명 댓글을 달다 글을 올리다 다운받다 이메일을 보내다/받다 파일을 보내다/받다 문서를 작성하다 파일을 지우다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중독 문법설명 -다가보면 대로 -(으)니/는대로 지문을 통해 “듣고 말하기” “읽기 말하기”를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한다	제시된 어휘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한다 문법을 이해한 후 문법을 활용한 문장을 말한다.	새 어휘를 활용한 질문제시하고 대답한다 문법을 활용한 문장의 오류를 수정한다 듣기지문 / 읽기 지문을 제시한다
연습	게임: 배운 어휘를 그림으로 제시한다. 문법을 활용한 문장을 질의응답으로 반복하여 연습한다.	학생들은 제시된 그림을 보고 어휘를 말한다 교사-학생 학생-학생 순서로 질문과 대답을 반복 연습한다.	도입부분에 제시한 그림을 다시 보여준다
활용	인터넷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블로그 사용방법, 채팅, 댓글, 이미지 다운받기등)	짝활동을 통해 서로의 인터넷 사용법의 관심사를 한가지 정해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조언, 설명, 방법	기본 대화유형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이 유형을 활용해서 대화를 만든다)

	인터넷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얻는 장점과 단점, 인터넷 사용규칙에 대해서 그룹별로 정리한 후 발표한다.	3명이 한 그룹이 되어 주제에 따른 발표 내용을 정리한 후 발표한다	을 대화로 만든다
	한국의 인터넷 문화를 통해 인터넷상의 언어에 익숙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상황을 비교해서 말한다.	카자흐스탄 인터넷 언어의 특징을 발표하고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인터넷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표한다	
마무리	오류교정 및 복습 과제제시: 인터넷 사용의 장점과 단점, 사용규칙에 대한 글짓기 400-600자	반복된 오류를 교정하여 말한다 제시된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다	

4. 단계별 말하기 활동,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국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실 활동”은 실생활에서 사용가능한 유의미적인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교사는 학습의 크기, 대상, 수업내용을 반영하여 수업목표에 맞게 활동들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의미있는 발화를 할 수 있는 실제 말하기 활동을 즐겁게 진행할 수 있다.

다음은 말하기 수업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교실 내 활동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단계	기능	활동유형 소개 및 종류
초급	인사하기	
	소개하기	단문형식으로 주제에 따라 소개하기 자기소개, 가족, 친구, 학교, 선생님, 물건
	따라하기	단어나 그림카드 등을 사용하여 교사가 예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반복하거나 대체한다.
	대체 혹은 교체하기	특정 문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말 이어하기	돌아가면서 여러사람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만들어가면서 듣기와 말하기 통합 연습
	묘사하기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묘사해서 말하기 배운 형용사를 활용한 인물묘사하기 장소, 음식, 물건 묘사하기
	듣기와 읽기를 통합한 문고 대답하기	지문을 듣고 또는 읽은 후 질문에 대답한다. 주제에 따른 질문에 답하기 혹은 답을 듣고 질문 만들기 하루일과 문고 대답하기 전화로 약속정하기
	짝 활동	간단한 정보를 묻고 대답하므로 말하기와 듣기를 연계할

		수 있다. 이름, 나이, 주소, 가족, 취미, 국적, 전공, 좋아하는 음식, 사는 곳
	주제에 따른 짧은 이야기	짧은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야기 하기 가족, 취미, 일상생활, 친구, 고향, 선생님
	간단한 역할극	일상생활상 자주 만나는 상황이나 장소를 설정해서 연습함으로써 유사한 실제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 식당에서 음식주문, 가게에서 물건사기, 길찾기, 약속하기, 전화대화등
중 고급	단어 게임하기	전체 혹은 그룹, 개인을 대상으로 언어의 정확성 연습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예: 언어게임, 수수께끼, 빙고게임, 그림카드나 주사위를 이용한 게임 등
	의견 말하기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쓰는 상황표현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의견말하기 옷이나 머리모양 다이어트방법, 외국어 교육, 웨빙등 유행하는 주제
	부탁하기/ 요청하기	부탁하고 요청, 수락하거나 거절할 때 필요한 언어표현, 언어예절 연습하기 A/S서비스 이용, 물건 빌리기, 이사 도움요청하기
	소그룹 활동	3-4 명이 한 조를 이루어 다양한 주제로 그룹별로 의견을 말하고 발표하기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 발표하기 여행 상품 만들기 각 나라의 문화 음식, 여행지 소개
	고민 말하고 조언하기	상대방의 고민을 듣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말하기 조언할 때 쓰는 상황표현을 활용하기 외모, 아르바이트, 대학 후 진로, 취업문제, 인간관계문제, 경제적 문제, 이성문제, 가정문제, 건강문제
	인터뷰하기	상대방의 일반적인 정보 이외에 감정, 견해, 사고등을 이야기 한 후 분석, 정리해서 발표하기 인물들의 경험에 대한 정보 최근에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추천해 주고 싶은 영화나 책
	뉴스보도하기	관심있게 듣고 읽기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기사로 보도하기
	이야기 재구성하기	교사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재구성해서 이야기한다. 혹은 친구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간접화법을 이용해서 다시 재구성한다
	발표하기	특정한 주제에 대해 조사한 사항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프리젠테이션, 강의, 보고등이 포함된다.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하기 표현을 연습할 수 있고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인물의 성공비결, 여가활동, 환경문제와 대책, 교육제도와

		대학교육, 음식문화, 각 나라별 가족행사 등 광고만들어 발표하기
비교해서 말하기		두가지 의견에 대해 비교해서 말하기 여행지 결정을 위한 비교하기 이사할 두 집의 장·단점 비교하기 물건 살 때 비교하기 자신의 나라와 한국의 문화의 차이점 표현하기 졸업식, 짬질방, 입시문화, 결혼식, 술자리 기념일과 명절
토론하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그룹별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으로 교사가 읽기자료나 사진등을 제시하여 주제를 정하고 토론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과 학습자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찾아가 이끌어가는 것이다. 도덕적, 사회적 주제들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설득하면서 대화의 길을 향상시키는 활동 휴대전화사용의 장 단점 생명윤리, 취업과 성형수술 사형제존폐, 장애인 이용권과 고용권 연애결혼과 중매결혼, 조기의국어교육,
존극이나 연극하기		상호협력해서 대본을 준비하고 많은 연습을 통해 발표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향상되고 발음도 좋아진다. 직장에서 허락을 구하는 역할극 (개인사정이나 몸이 아플 때) 속담에 들어가는 상황극 만들기

맺음말

의사소통 향상의 목표를 둔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서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읽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쓰고 말하기”등 한국어 학습의 4 가지 영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이다. 특별히 말하기 수업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교사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휘와 표현을 다른 말로 쉽게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하는 인내와 여유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은 잘 듣지못해서 대답할 수 없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다시한번 천천히 말씀 해 주세요” 등과 같이 청자에게 도움을 구하며 표정이나 손짓, 몸짓등의 신체언어를 활용해서 최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정확하고 유창한 말하기는 학습자의 인내와 성실한 노력뿐만 아니라 교사의 효율적인 학습지도 방안을 찾기위한 수고가 선행되어야한다.

참고문헌

1. 김상수(2013), “한국어 교수-학습설계”, 한국어교육, 알마티 한국어교사연수.
2. 노대규(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푸른사상.
3. 연세대(2008), <한달 완성 한국어 말하기 중급 1.2>, 연세대 출판부.
4. 장용원 외(2012), “말하기 교수법”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아카넷.
5. 최정순(1997), “교제 구성에 있어서 과제 개념의 적용에 관하여”, <한국말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 박벨리 외(2010),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한국어 1~6>, 국제교류재단.
7. 허용 외(2005),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학 개론>. 박이정.
8. 허용 외(2005), <즐거운 한국어 수업을 위한 교실 활동 100>, 박이정.